스포츠, 세상을 바꾸다



이안의 Media In Buddha

㊼ 영화 〈60만번의 트라이〉와 고시엔



영화 〈60만번의 트라이〉의 한 장면. 일본의 '자이니치', 재일동포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다룬다.

'공포의 외인구단'은 이현세 만화가 작품의 제목이었다. 한국만화명작 100선 가운데 1위인 이 만화에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들의 매력과 그들이 온갖 역경을 이겨내는 서사가 주는 희망과 감동은 영화도 되고 드라마도 됐다. 이제는 주류도 아니고, 잘 나지도 못했고, 금수저 아니라 보통 수저도 타고 나지 못한 아웃사이더들이 모여 야구 하나로 꿈을 이룬다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현상을 일컫는다.

'공포의 외인구단'처럼 차별과 소외를 딛고 최고에 오르는 것은 워낙 기적 같은 일이라서 만화나 영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겠거니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8월 일본에서, 그것도 야구 만화에서 늘 '꿈의 구장'으로 등장하던 일본 고교야구 고시엔 무대에서!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大和)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아침 저녁 몸과 덕 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이라는 노랫말 교가가, 그것도 순 한국어 그대로 일본에서 야구장에서 울려 퍼졌다. 국제대회도 아니고, 한일 친선 경기도 아니고, 그냥 그 유명한 일본 고등학교 전국 야구 대회인 고시엔 대회에서는 우승팀 교가를 연주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기 때문이다. 우승팀 이름은 교토국제고등학교.

교토국제고는 중학교, 고교생을 다 해서 학생 수가 160명 정도의 작은 학교다. 재일한인들이 민족 정체성을 지키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 해방 직후인 1947년 설립한 교토조선중학교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1945년 8.15 당시 일본에는 200만 명이 넘는 동포가 일상적인 박해와 민족 차별에 시달리며 살고 있었다. 이들이 귀국하는 문제에 대해서 패전국인 일본 정부나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총사령부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었다. 1인당 1000원 이상을 갖고 나갈 수 없는 가혹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집도 절도 없는 고국으로 귀환할 엄두를 못내고 1950년 한국전쟁으로 분단이 고착화될 무렵까지도 60만여 명이 해방된 조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일본에 남게 되었다.

그러다 남북이 분단된 상태로 남한과 북한의 국적을 선택할 수 없는 재일조선인들은 국적이 여전히 '조선'인 상태로 발이 묶였다. 교토조선중학교는 한국 정부의 인가를 받아 1961년부터는 교토한국중학교, 1965년에 한국고등학교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해오다가 2003년, 교토국제고로 이름을 바꾸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정식 학교 인가를 받고 국적에 상관없이 학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재적 학생의 65%는 일본인이고 한국계 학생은 30%가량이니 명실상부한 국제고가 맞다.

일본 정부의 인가를 받지 못했던 대안 학교에서 정식 학교가 되기까지 여러 세대를 이어오는 동안 재일조선인 국적의 1세대는 세상을 떠났고, 저출생 기조에서 인구가 줄면서 재일조선인의 수도 줄었으나 여전히 민족 교육을 하는 터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국제고로의 전환과 더불어 야구부 창단은 좋은 선택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학교를 이어나가기 위해 1999년에 야구부를 창단했으나 처음에는 야구부 성적이 형편없다보니 정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야구부가 좋은 성과를 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한다. 2020년대에만 세 번의 고시엔 진출에, 4강 진출 한 차례에 이어 올해는 우승까지 차지한 신흥 야구 명문고가 된 것이다. 야구를 하기 위해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점차 늘어 이제는 교토국제고 전교생 160여 명 가운데 무려 60명가량이 야구부란다.

한국에서도 많은 기사와 SNS 포스팅이 쏟아졌고 한일 문제로 늘 다투던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식적으로 축하를 전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SNS를 통해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가가 고시엔 결승전 구장에 힘차게 울려 퍼졌다. 교토국제고의 고시엔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열악한 여건에서 이뤄낸 기적 같은 쾌거는 재일교포들에게 자긍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야구를 통해 한일 양국이 더욱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축하를 보탰다.

여기까지 정말 재일조선인들은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 그런 노력이 담긴 영화 가운데 박사유, 박돈사 감독이 만든 오사카 조고 럭비부 소년들을 통해 60만 재일조선인을 돌아보는 〈60만 번의 트라이〉도 있다.

재일한국계 학교 교토국제고 고시엔 우승 '감동'
열악한 환경에도 쾌거…스포츠 통해 '꿈' 이뤄
'60만번의 트라이'도 오사카 조고 실화 담아내

'트라이'는 럭비 용어다. 노력하다, 해보다, 시도하다, 하려고 하다라는 영어 기본 단어 말고, 그냥 그 용어 그대로의 상대편의 인골(ingoal) 안에 공을 찍는 일을 일컫는 스포츠 용어. 트라이가 성공하면 4점을 득점하고, 덤으로 골킥을 해서 추가득점을 할 권리를 얻는다.

그 트라이를 60만 번이나 한다는 〈60만 번의 트라이〉 라니! 럭비는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종목이다. 그 비인기종목인 럭비를 하겠다고 일본에서, 그것도 지방도시 오사카에서, 재일조선인 3세들이 뛰고 구르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그런데 왜 60만 번이냐고?

'자이니치(在日)'의 숫자가 60만 명이기 때문이다. 재일조선인들의 입장에서는 일본에 귀화하면 더 이상 핍박받는 일이 없어지는 대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 남쪽을 선택하면 말과 글을 배우기 힘들어 뿌리를 잊게 된다. 북쪽을 선택하면 전 세계에서 고립된 이방인이 된다. 어디를 선택하든 다른 반쪽을 포기해야 한다. 가령 부모 가운데 하나는 남쪽 출신이고 다른 하나는 북쪽 출신이라면? 그러니 그냥 '조선' 국적을 유지하는 '자이니치(在日)'의 숫자가 60만 명이다.

〈60만 번의 트라이〉 그 60만 조선인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뜨거운 응원가다. 어느 하나를 얻고자 다른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뛰고, 웃고, 서로를 믿는 가운데 어른들이 닫아건 빗장을 아이들이 열어가는 세상을 보여준다. 학부모, 선생님뿐 아니라 오사카 조고 아이들은 시합 중에는 편이 갈리지만 끝나면 '네 편 내 편'이라는 사이드가 없이 함께 교류하고 즐기는 럭비의 '노사이드 정신'으로 함께 달리는 즐거움을 나눈다. 이렇게 일본 학교 아이들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럭비 한마당에서 한일관계와 남북분단 현실이 나아가야 할 길의 방향이 보인다.

〈60만 번의 트라이〉의 럭비 선생님은 '스포츠가 사회를 바꾸게 하라'고 한다. 교토국제고의 고시엔 우승은 '공포의 외인구단'이 사회를 바꾸고 있는 기적 같은 현실이다.

지난해, 조계종에서는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주최로 일본 도쿄 및 교토 일대를 돌며 '간토학살100주기 추도 및 재일조선인 역사문화순례'를 진행했다. 이때 해방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지금도 살고 있는 마이즈루만과 우토로 마을을 차례로 방문하고 피해와 가해의 역사가 뒤섞인 '요코아미초 공원'부터, 일본 시민들 주도로 해마다 치러지는 '간토학살 추도행사', 마이즈루 '순난의 비' 등을 두루 돌아보고서 우리가 할 일이 "바르게 알고, 기억하고, 교류해서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기억을 안겨주자"라는 깨달음을 나누었다.

교토국제고의 우승과 한국어 교가는 또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 한국에 살고 있는 숱한 이주민 이웃들이 방송에서 유창하게 한국말 하는 모습도 좋지만 자신들의 언어, 부모 나라의 언어로도 우리와 더불어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깨달음. 그것이 바로 교류를 통한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기억'이리라.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㉟

1. 부처님의 최초의 가르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처님은 녹야원에서 최초로 설법하였다.
② 부처님의 최초의 가르침을 '초전법륜'이라고 부른다.
③ 부처님의 최초 가르침 이후 삼보(三寶)가 갖추어졌다.
④ 부처님의 최초의 가르침의 내용은 중도(中道)와 사성제(四聖諦)이다.
⑤ 부처님의 최초의 가르침은 당시 지방 장자의 아들 야사와 그의 친구들에게 이루어졌다.

해설 : 부처님께선 녹야원에서 최초의 가르침을 설하셨는데 이를 초전법륜이라고 한다. 설법의 내용은 중도와 사성제이고 이 설법을 들은 이들은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할 때 옆에 머물다가 떠나간 다섯 명의 수행자이다. 이들은 이 설법을 듣고 최초의 승려가 되었으며, 이 때 부처님(불), 가르침(법), 승가(승)의 삼보가 갖추어 졌다. 야사와 그의 친구들은 초전법륜 이후의 설법을 들었다.

2. 다음 중 불자들의 믿음의 대상인 삼보(三寶)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 불보, 법보, 승보 ② 경장, 율장, 논장 ③ 계율, 선정, 지혜
④ 불상, 법고, 범종 ⑤ 삼법인, 사성제, 8정도

해설 : 삼보란 불교를 이루는 세 가지 보배라는 뜻으로 불보(부처님), 법보(가르침), 승보(승가)를 가리킨다. 경, 율, 논은 불교경전의 세 가지 요소(삼장)이고, 계, 정, 혜는 배움의 삼 요소(삼학)이다. ④, ⑤는 불교예술 및 불교교리에서 임의로 세 가지를 뽑은 것이다.

3. 다음 괄호 안의 내용은 부처님의 전도선언이다.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은?

나는 하늘과 인간의 모든 그물을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천신과 인간의 모든 그물을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라. 여러 사람의 (a)와/과 (b)을/를 위하여, 세상을 연민하여 인간과 천신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길을 떠나라.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마라. 그래서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 이 법을,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이 법을 선포하라. 청정한 삶을, 완전하고 순결한 이 성스러운 삶을 선포하라. 세상에는 눈이 과히 흐리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법을 듣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마저 바른 길에 들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세상에는 법을 이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우루웰라의 세나 마을로 가서 법을 가르치겠노라.

① a : 행복 - b : 극락 ② a : 이익 - b : 안락 ③ a : 열반 - b : 해탈
④ a : 이익 - b : 깨달음 ⑤ a : 평화 - b : 사랑

해설 : 부처님께서는 초전법륜 이후 야사와 그의 친구들 50여 명에게 법을 설하시어 본인을 포함한 총 60인의 아라한이 탄생했을 때,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라 선언하셨다. 이를 전도선언이라 하며, 내용은 위와 같다. 부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라 하신 까닭은 여러 사람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이다.

4. 부처님의 전도선언으로 틀린 것은?

① 두 사람씩 짝지어 전도를 떠날 것
② 조리 있게 잘 표현하여 법을 전할 것
③ 법을 전하고 청정한 행동을 보여줄 것
④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법을 전할 것
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전할 것

해설 : 전도선언의 내용은 위의 문제를 참조. 부처님께서는 법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 머무는 것을 멀리 하라고 하셨다. 이는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라는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다. 부처님 본인께서도 혼자 우루웰라의 세나마을로 가셨다.

5. 부처님이 가야산 꼭대기에서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고 설법했을 때, 그 타고 있는 불이 상징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탐욕의 불 ② 분노의 불 ③ 고뇌의 불 ④ 승리의 불 ⑤ 어리석음의 불

해설 : 전도선언 이후 부처님께서는 우루웰라의 가섭 삼형제를 불교로 귀의 시키셨다. 이 가섭 삼형제는 불을 신성시하고 신앙하는 사문들이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를 탐욕, 분노, 고뇌, 어리석음으로 비유하시어 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부처님 법으로 조복시키셨다. 참조로 부처님께서 불이 익숙한 가섭 삼형제에게 불의 비유로 가르치셨듯이 듣는 사람의 수준과 근기를 감안하시어 설법하시는 부처님의 능력을 대기설법이라고도 한다.

정답 : 1. ⑤ 2. ① 3. ② 4. ⑤ 5. ④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스님! 나이가 들어가면 염불이
조금씩 힘이 들지요! ..... 이제 2m 떨어져서 작은 염불 소리에도
법당을 감돌고 휘도는 소리가 스님의 귀에 울려 퍼짐으로 염불이 신명 넘치는 마이크를 지금 소개합니다.

방문 마이크 테스트시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마이크 : 이태리 성악전문 수입품(Schoeps Martin) (마이크소리 테스트비용 한잔!)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귀 법당시설 마이크와 본사 견본 마이크 양손 비교시 장난감 수준차이 반드시 확인!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마이크 마이크
가격 ₩ 79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 79만원

영혼의 세계 빙의

◉ 전생 빙의 퇴마 ◉
전생을 알아야 실마리가 풀린다
본인들 입으로 빙의된 영가가 누구인지 말하게 됩니다

신비의 약손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임신이 안되는 분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상담 가능 천광암 H.P 010-8673-4426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